

모두발언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서울 (2022년 9월 2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은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한민국을 첫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인사말

대한민국에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8월 1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 받은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방한하게 되었습니다. 위임권한 수행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 방한 요청을 수용해 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저와 솔직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이하 “북 이탈자”), 피해자 및 그 가족들,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기관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방한을 통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위임권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방한 기간 동안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인권 침해를 겪었던 피해자 및 북 이탈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동안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인권 또는 인도적 노력의 중심에 반드시 피해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타당성과 유효성도 피해자를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제 위임권한을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 및 여아의 경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필요사항과 북측 내에서 마주하는 역경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면담 및 논의 사안

최근 북 이탈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최근 대한민국에 입국한 여성 이탈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자리를 빌려 이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두 여성은 대한민국까지의 길고 위험한 여정에 용감하게 나선 이들로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저는 방한 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시민사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에는 북 이탈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됩니다. 시민사회를 통해 저는 한국전쟁 중과 전후 납북된 대한민국 국적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후 북으로 가게 된 한국군 포로, 북에 남은 한국전쟁 포로 및 이들의 가족, 그리고 가족 이산 피해자가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 등 북측 내 인권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책임 규명과 정의 실현, 남북 평화 운동, 식량 접근성, 인도적 지원 제공, 북 주민의 정보 접근성 부재, 강제노동 관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북측의 방역조치 등의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에 구금된 북 이탈자, 강제 북송된 이들, 그리고 북 이탈자의 대한민국 재정착과 통합 지원에 관해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북측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활용 등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북 주민에 소식을 전달하고 해당국 인권 상황을 살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측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북 이탈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를 인식 제고 및 향후 책임 규명 보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기관과 논의했습니다.

인권 사안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을 인권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처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특별보고관이라는 위임권한을 시작했고, 특별보고관이라는 자리를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소화하는 중이며, 제가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동안 도움을 주실 분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어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컨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관계자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해당국 정부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혹은 저를 통하여 다른 협력 관계를 맺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중요한 사안은 정보 결여입니다. 제가 만난 관계자 거의 대부분이 해당국으로부터 나오는 최신 정보를 구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현재 인권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재 고립되어, 해당국에서 나오는 정보가 없다는 점이 제가 위임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식량과 보건

현 상황에 대해 제가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자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최취약계층이 기아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불만한 정보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난 최근 북 이탈자 중 한 명은 2021년 초에 이미 물건 가격이 6-7배 오른 상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군 비축분 쌀을 풀어 군인에게 배급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경 차단과 장기화 속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전부터도 식량 불안정을 겪었던 40 퍼센트의 인구가 겪고 있을 상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보건 접근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문가들은 북측의 보건 제도가 대규모 환자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장기간 국경 차단으로 인해 의약품이 부족한 점이 우려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백신 수용에 관심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콜드체인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여성 및 여아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치가 여성과 여아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기관, 예를 들어 여성 단체와 학교 등이 할당량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할당량에 맞춰 여성과 아동이 물질적 재화 및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전에도 이미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또한 코로나 대유행 동안 더욱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장기간 국경이 차단된 여파로 여성이 생계를 꾸리는 수단인 상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고 어찌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앓을 가능성도 있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국가에 할당량도 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 이산

대한민국에서 가족 이산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 들었습니다. 가족 상봉 행사를 우선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는 남북 정부 모두가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화상으로든 직접 만날 수 있는 형태로든 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고통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 이탈자들도 겪고 있습니다. 한 젊은 북 이탈자는 저에게 아직 북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나 그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접한 정보에 따르면, 북에 남아 있는 일부 북 이탈자 가족이 국경 지대에서 내륙으로 이주를 당하고 더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방향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제공동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북측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 첫번째 보고서는 분량이 많지 않겠지만, 뉴욕에서 10월 말 개최될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그리고 해당국에 의해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개선을

이루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이는 정부,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을 포함합니다. 사법적, 비사법적 방안을 모두 포함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또한 여성과 여아의 권리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의 협력 기회도 모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식 방문 동안 고무적이게도 작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국제공동체와 협력하면서 생겨난 변화들을 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루아침에 외부 세계에 개방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 위임권한을 포함한 국가별 인권 상황에 대한 위임권한을 반대한다는 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북측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재고하여 저와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북측 주민의 삶과 그들의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